

구정질문 서면질문서

질문의원 : 박주선 의원

1. 강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<건축과>

- 서울시가 각종 건축물 붕괴, 건축공사장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1월 「안전관리 혁신대책」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 중인 자치구가 거의 없음.
- 현재 강서구 건축안전센터는 1개팀, 5명이 근무 하고 있음.
또,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.
강서구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만 1천동이 존치하고 있고, 건축 공사장 약 230여 개소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인력으로 기존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.
- 내년 1월 1일부터 강서구 등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'건축안전센터'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음.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- 강서구의 건축안전센터를 독립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여 현재 건축사 이외 구조분야 등 추가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내실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주시기 바람.